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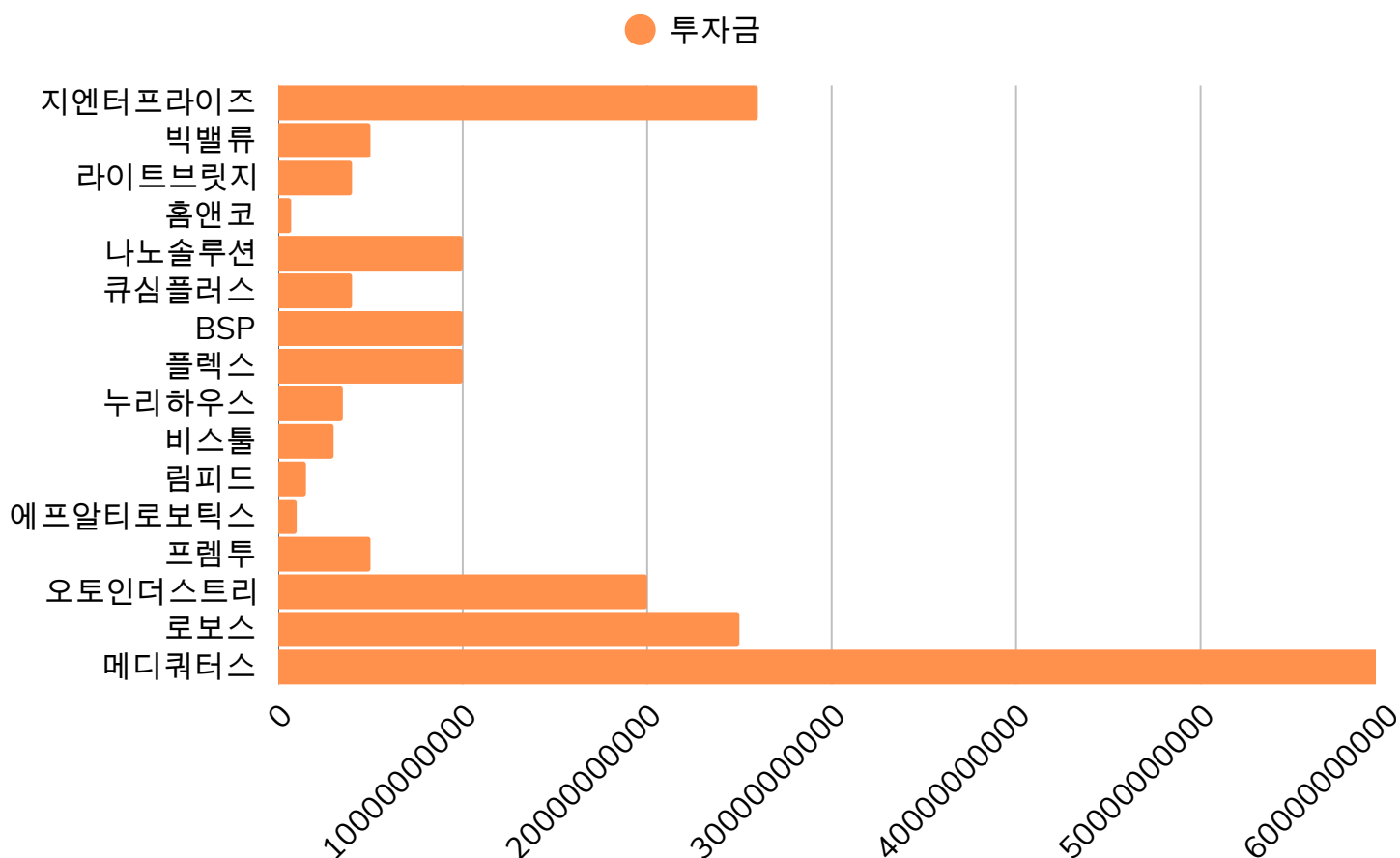
startuprecipe

RECIPE FOR STARTUP

STARTUP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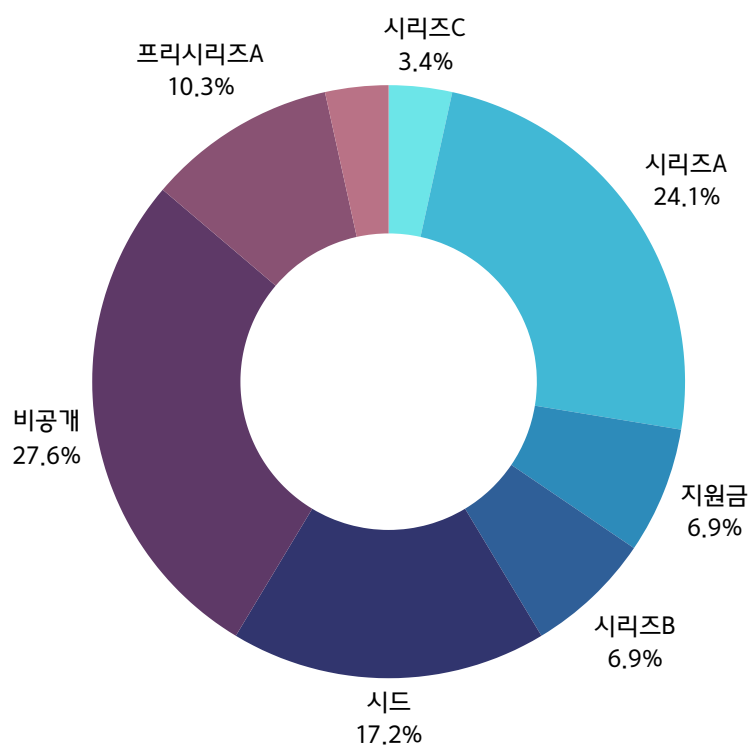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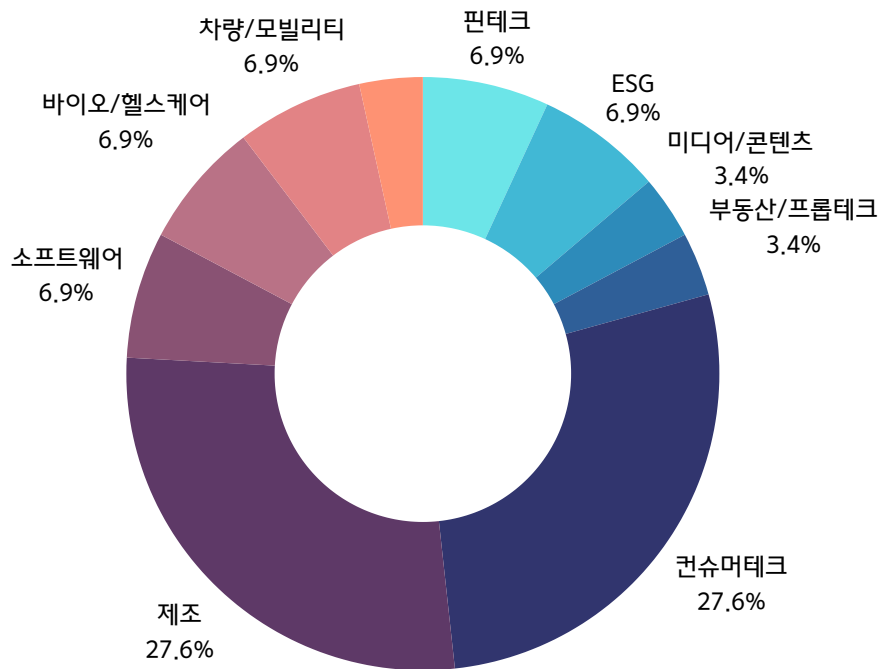
2025년 6월 09-13일 주간 투자 동향



2025년 6월 09~13일 주간에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수는 29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액을 공개한 16개 기업이 1,887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단계별/분야별 투자 규모





이번주 단계별 투자를 살펴보면 시리즈A가 24.1%로 가장 높았고 시드 17.2%, 프리시리즈A 10.3%를 나타냈다. 분야별 투자 규모의 경우에는 컨슈머테크와 제조가 각각 27.6%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케어, 차량/모빌리티, 핀테크, ESG 등이 각각 6.9%를 기록하는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주요 투자 유치 기업

이번주 주요 투자 유치 기업을 보면 패션 뷰티 플랫폼 기업인 메디쿼터스가 600억원 시리즈D 투자를 유치한 가운데 세무 자동화 플랫폼 기업인 지엔터프라이즈가 260억원 시리즈C를, 도축 자동화 로봇 기업인 로보스가 250억원 시리즈B를, 자동차 초정밀 부품 기업인 오토인더스트리가 200억원 투자를 유치해 눈길을 끌었다.

지엔터프라이즈 : 260억원 시리즈C



세무 자동화 플랫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가 26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금 355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NH투자증권과 NH벤처투자가 공동 운용하는 엔에이치디 지털얼라이언스 펀드가 주도했으며, 우신벤처투자, 신한벤처투자, 마젤란기술투자, 지애택벤처투자, 케이투인베스트먼트 등이 신규 투자사로 참여했다. 지엔터프라이즈는 세무 자동화 솔루션 ‘비즈넵 환급’과 ‘비즈넵 케어’의 안정적 성장을 바탕으로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매출 14%, 영업이익 164%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비즈넵 환급’은 출시 2년 8개월 만에 누적 관리 환급액 9,000억 원, 누적 가입 사업자 수 230만 명을 돌파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다. 이번 투자금은 ‘비즈넵’의 핵심 서비스 및 기술 고도화, ‘비즈넵 케어’ 서비스 확대, 마케팅 강화, 금융기관 및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 확대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세무 특화 AI 서비스 ‘비즈넵 SeNa’ 고도화와 법인사업자 대상 서비스 확장, 빅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종합 세무·재무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빅밸류 : 50억원 시리즈B



데이터테크 기업 빅밸류가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액 120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신한벤처투자가 주도했으며,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와 로이투자파트너스가 신규 투자자로 합류했다. 이번 시리즈B는 재무적 투자자(FI) 중심으로 구성돼, 빅밸류의 자립적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음을 보여준다. 신한금융그룹과의 협업도 지속되며, 그룹 계열사인 신한벤처투자가 후속 투자를 주도해 빅밸류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했다. 빅밸류는 이번 투자금을 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밸류 플랫폼’ 고도화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개발 방향은 산업 특화 온톨로지 구축을 통해 AI와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회계·부동산·금융 등 전문가들과 협업해 B2B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기업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사는 지난해 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했으며,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구축해 외부 차입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빅밸류는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데이터 인프라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며 국내 데이터 산업에서 독자적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라이트브릿지 : 40억원 시리즈 A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라이트브릿지가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에는 안다아시아벤처스,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으며, 신기술 및 그린에너지 분야 펀드를 통해 자금이 집행됐다. 라이트브릿지는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 모듈형 수전해 스택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제 인증 대응 및 미국·유럽 중심의 실증 프로젝트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35MW 규모 수전해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회사는 자체 개발한 모듈형 전해조 기술을 기반으로 고효율 수전해 모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수전해·정제·압축·충전 기능을 통합한 'H-Bridge' 플랫폼을 통해 중소형 수요처를 겨냥한 차세대 수소 인프라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홈앤코 : 7억원 시드



홈앤코가 운영하는 공간 유지보수 플랫폼 '홈코'가 카카오벤처스와 엑스퀘어드로부터 7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확보했다. 홈코는 집수리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전문가가 출장비 없이 현장을 점검한 후 표준가격제에 기반한 견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내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홈코는 데이터 기반 표준화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리 전문가의 작업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출시 6개월 만에 월 평균 수리 요청 100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홈앤코는 토스와 구글, 골드만삭스 출신 경영진이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건축물 유지보수 데이터를 구조화해 신뢰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CX 및 영업 전문가를 채용하고, 향후 노후 주택 수리부터 건자재 유통, 시설물 관리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노솔루션 : 100억원



나노 신소재 기술 스타트업 나노솔루션이 벤처캐피털(VC)로부터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라플라스파트너스와 캡스톤파트너스가 공동으로 80억 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아이디벤처스, IBK캐피탈, 산은캐피탈도 신규 투자자로 합류했다. VC 업계의 신중한 투자 기조 속에서도 나노솔루션은 고결정성·고순도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WCNT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도성 필름과 리튬이온 배터리 전극 신소재로 활용되며, 나노솔루션은 관련 산업에서 상용화를 이루고 있다. 이번 투자로 나노솔루션은 SWCNT 생산량을 확대하고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큐심플러스 : 40억원 시리즈A 브릿지



양자통신 스타트업 큐심플러스가 K2인베스트먼트와 스틱벤처스로부터 총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브릿지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K2인베스트먼트가 리딩을 맡았으며, 스틱벤처스는 기존 시리즈A 투자에 이어 후속 투자자로 참여했다. 큐심플러스는 양자암호키분배(QKD)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데이터센터와 군·헬스케어 분야에 제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QKD 장비 소형화를 통한 실용성 개선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1년 설립된 큐심플러스는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BSP : 100억원 시리즈A



반도체 장비 기업 BSP가 퀀텀벤처스코리아, SBI인베스트먼트,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00억원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BSP는 유리기판 공정의 핵심 기술인 TGV(Through Glass Via) 프로세스를 위한 레이저 및 에칭 장비를 공급하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최근 AI 및 고성능 컴퓨팅(HPC) 수요 증가로 반도체 칩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유리기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BSP는 이번 투자금을 설비 확대와 양산 능력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플렉스 : 100억원 시리즈 B-1

flex

올인원 HR 플랫폼 플렉스(flex)가 한리버파트너스로부터 기업가치 5000억원을 평가받으며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 B-1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플렉스는 이번 투자금을 '넥스트 플렉스' 구현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AI를 결합한 신규 서비스 출시, 핵심 인재 채용, 세일즈·마케팅 조직 확대 등이 주요 투자처다. 플렉스는 1~2년 내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추진하며,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목표로 유니콘 기업 지위 확보를 노리고 있다. 장해남 대표는 고객의 성장을 바탕으로 ARR(연간반복매출) 300억원을 돌파했으며, AI SaaS의 개척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플렉스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HR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올인원 플랫폼을 제공하며, '플렉스 파트너스' 서비스로 HR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무 관리 기능과 모바일 앱 '플렉스 미니'를 출시하며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 이번 투자로 플렉스의 누적 투자액 및 보증지원액은 총 800억원에 달한다.

누리하우스 : 35억원 시리즈A 브릿지

NURIHAUS

크리에이터 플랫폼 누리하우스가 해시드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35억 원 규모의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시리즈A 투자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에 나섰다. 누리하우스는 K-뷰티 글로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누리라운지와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 누리글로우를 운영하며, 현재 100여 개국 8만여 명의 크리에이터가 활동 중이다.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 도시인 도쿄와 뉴욕 등으로 커뮤니티를 확대하고, K-뷰티 수출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샵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한 마케팅·세일즈 프로젝트를 강화한다. 누리하우스는 글로벌 K-뷰티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과 산업 저변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비스툴 : 30억원 프리시리즈A

BISTOOL

성형 보형물 전문 기업 비스툴이 프리A 시리즈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총 3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에는 콜마홀딩스, 더인벤션랩,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등 3개사가 참여했다. 비스툴은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 3D 맞춤형 프리미엄 보형물 ‘쏘핏(SOFIT)’의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AI와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성형 시 부작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인 ‘쏘핏’은 지난해 출시 이후 주목받고 있다. 회사는 국내 코성형 보형물 시장을 맞춤형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하고, 해외 20개국으로 제품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인허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비스툴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맞춤형 성형 보형물 기술을 선도할 계획이다.

림피드 : 15억원 프리시리즈A

펫푸드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듭니다

LIMPID

바이오 펫푸드 스타트업 림피드가 프리 A 라운드에서 15억 원의 투자를 확보했다. 삼성화재-인포뱅크, 오라클벤처투자, 경북대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신용보증기금 등이 이번 투자에 참여했다. 림피드는 조달한 자금을 북미 시장 확대, 일반 및 처방사료 제품군 강화, 임상시험 기반 R&D 고도화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동결건조 공법을 적용한 ‘닥터트러스티’ 브랜드를 앞세워 글로벌 대안사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회사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협력해 반려동물 임상시험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이미 전년 연매출을 초과했으며, 연간 600% 성장 전망을 내놓았다. 림피드는 북미 주요 온라인 채널 입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기능성 처방사료 및 비건 사료 라인업을 확장해 반려동물 영양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에프알티로보틱스 : 10억원 시리즈A

FRT
Field Robot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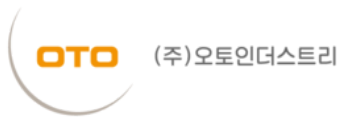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제조사 에프알티로보틱스가 메디치인베스트먼트 IBKC-메디치 기술혁신 투자조합을 통해 1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시리즈A 투자 라운드로 진행됐으며, SL인베스트먼트와 클럽딜 형태로 협업했다. 에프알티는 2015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스텝업’을 주력 제품으로 개발해 노동자의 피로도 감소 및 근력 지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프렘투 : 50억원



차세대 배터리용 고성능 집전체 개발을 추진하는 프렘투가 포스코기술투자로부터 5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포스코홀딩스CVC 2호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집행됐다. 포스코기술투자는 황화물계 전고체전지 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철-니켈(Fe-Ni) 계열 신소재 개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기존 구리박(Cu foil)의 부식 문제를 해결할 대체 소재가 필요하다는 점이 투자 결정의 주요 배경. 프렘투는 배터리 내부에서 전자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초박형 금속 집전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리튬이온배터리 및 전고체전지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배터리 업체 및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오토인더스트리 : 200억원



오토인더스트리가 그리니치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2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오토인더스트리는 변속기, 감속기, 모터 등에 들어가는 기어류 등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현대차그룹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 확장에 발맞춰 친환경 파워트레인 부품 생산을 강화하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4173억원, 당기순이익은 227억원을 기록했다. 투자 유치의 배경에는 우수한 재무 실적과 사업 확장성이 있었다. 오토인더스트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로봇 등 다양한 산업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금을 공장 및 생산 라인 증설 등 설비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로보스 : 250억원 시리즈B



도축 자동화 로봇 개발업체 로보스가 2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이번 투자에는 산업은행, 롯데벤처스, 디티엔인베스트먼트, CKD창업투자, 퓨처플레이 등이 참여했으며, 시리즈A 투자자들도 팔로우온 투자에 나섰다. 로보스는 스마트팩토리 기술의 상용화 범위를 확대하며 올해 300억원의 연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단품 로봇 판매에서 벗어나 공장 전체 계약을 늘려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술성평가를 통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는다. 하반기 중국과 캐나다 시장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10월에는 소도축 로봇을 경남 창녕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로보스는 도축장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기존 인력난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규 로봇 개발을 진행 중이다.

Mediquitous

패션·뷰티 플랫폼 메디쿼터스가 600억 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가장 큰 투자자인 현대백화점은 일본 패션 플랫폼 ‘누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00억 원을 투입했다. ‘누구’는 현대백화점의 일본 팝업스토어 운영을 맡아 목표 매출을 초과 달성하며 신뢰를 얻었다. 이번 투자로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강화를 추진한다. KB증권과 신영증권도 글로벌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며 300억 원을 투자했다. 메디쿼터스의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 2,300억 원 중 3분의 1을 차지했다. ‘누구’는 일본 대형 패션 플랫폼 ‘샵리스트’ 인수를 통해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올해 입점 브랜드를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뷰티 브랜드 아닐로·바나날·메디247의 지난해 매출은 500억 원을 기록했다. 메디쿼터스는 유망한 패션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연내 추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KB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한 메디쿼터스는 2027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 3,00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주간 체크 포인트

아기유니콘 선정된 300개사...성과는?=정부가 아기유니콘 육성 성과를 발표했다. 아기유니콘 사업은 기업가치 1,000억 이상 예비유니콘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억원의 시장개척자금과 최대 5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2025년(2025년 선정 50개사 보기)까지 350개사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정부는 아기유니콘을 국내 대표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6월 09-13일 투자 현황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지엔터프라이즈	세무 자동화 플랫폼	165억원	시리즈C	NH투자증권
업밸류	재테크 교육	비공개	시리즈A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도티오	HR 테크	비공개	지원금	팁스
라이트브릿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	40억원	시리즈A	안다아시아벤처스,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빅밸류	데이터테크	50억원	시리즈B	신한벤처투자,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로이투자파트너스
제너디어스	AI 메뉴판 솔루션	비공개	지원금	팁스
홈앤코	공간유지보수	7억원	시드	카카오벤처스, 엑스퀘어드
뉴룩	막걸리 기반 음료	비공개	시드	씨엔티테크
딤핑소스	AI 리테일테크	비공개		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3호
나노솔루션	나노 신소재 기술	100억원		라플라스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아이디벤처스, IBK캐피탈, 산은캐피탈
큐심플러스	양자통신	40억원	시리즈A 브릿지	K2인베스트먼트, 스틱벤처스
BSP	반도체 장비	100억원	시리즈A	퀀텀벤처스코리아, SBI인베스트먼트, 유안타인베스트먼트
플렉스	HR 스타트업	100억원		한리버파트너스
로타임비즈텍	로펌용 ERP 솔루션	비공개	인수합병	로앤컴퍼니
비스틀	성형 보형물	30억원	프리시리즈A	콜마홀딩스, 더인벤션랩,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누리하우스	K뷰티 해외진출	35억원	시리즈A브릿지	해시드
에프알티로보틱스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10억원	시리즈A	메디치인베스트먼트 IBKC-메디치 기술혁신 투자조합
럼프드	바이오 펩투드	15억원	프리시리즈A	삼성화재-인포뱅크, 오 라클벤처투자, 경북대기 술지주, 씨엔티테크, 신 용보증기금
디브레인	소형 무인기	비공개		한국항공우주산업
프렘투	차세대 배터리용 고성능 집전체	50억원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 홀딩스CVC 2호 신기술 투자조합
노랑푸드	치킨 프랜차이즈	비공개	인수합병	줄리케이
아이메디텍	재생의료기기 제조	비공개	시리즈A	한국투자파트너스, 나우 아이비캐피탈, 플래티넘 기술투자
바크	인체공학 풋웨어	비공개	프리시리즈A	씨엔티테크, 넥스트엘레 베이션, 기술보증기금, 와이즈플래닛
씨아이에스케미칼	이차전지 소재	비공개		젠엑시스
섬에어	소형항공기	비공개		빅무브벤처스
디고랩스	AI 기반 페플라스틱 재 활용	비공개	시드	에트리홀딩스
오토인덱스트리	자동차 부품	200억원		그리니치프라이빗에쿼 티
로보스	도축 자동화 로봇	250억원	시리즈B	산업은행, 롯데벤처스, 디티엔인베스트먼트, CKD창업투자, 퓨처플레 이
영앤	AI 시니어 헬스케어	비공개	시드	엔슬파트너스
메디쿼터스	브랜드 이커머스	600억원	시리즈D	현대백화점, KB증권, 신 영증권

스타트업레시피 | www.startuprecipe.co.kr

기사 제보 : news@startuprecipe.co.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7-5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 1, 604호

전화 : 070-4048-4013